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산골 소녀 영자. 강원도 오지 산 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연의 건강을 누리며 천진하게 웃던 그녀. 사랑하는 딸을 탁한 문명 속으로 내보내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영자의 심신은 강원도 산골의 맑은 기운으로 싱싱하게 빛났었다. 생기가 있는 지식과 견집을 수 없이 부풀려진 욕망에 지친 도시인들에게는 신선함 그 자체였다.

회소성은 곧 높은 상품 가치임을 꿰뚫고 있는 자본주의 침범들의 후각은 역시 민감하였다. 기업과 언론은 이 부녀의 삶을 신속하게 요리하기 시작하였다. 돈 되고 시선을 높이는 일인데 앞 뒤 가림이 없었다. 부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예상이나 배려를 할 여유가 어디 있나.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카메라로 담고 내고 광고에 띄워야지. 과연 그 후각은 정확하였고 타이밍은 절묘하였다. 저자거리의 인간 악취가 도처에서 코를 찌를 때인지를, 산골 부녀 소박한 삶의 그 향수(嚮)같은 그림은 훌륭한 상품이었다.

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란 말인가, 이것이 인생 아니던가?'라고 현실 순응의 태도이다. 드문 일이지만 문명 체계에서 발을 빼는 경우도 있다. 문명의 길들임과 문명의 부추김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을 차폐하여 오염을 막아보려는 몸부림이다. 현실에서 몸을 빼고 물러나는 퇴행(退行)의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문명 기피 노력이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비록 성공한다고 해도 그 견실함이 문제가 된다. 무관심에서 키워낸 안락한 몸의 건강이 언제나 아슬아슬하듯이, 문명에 노출되어 보지 않은 산골 소녀의 순박한 건강은 환경만 바뀌면 단번에 스러져 버린다. 적당히 오염되어 면역력을 갖춘 사람보다 더 크게 더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우리가 중국선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선사가 보리 달마다.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인 달마는 선법을 닦기 위해 중국의 소림사에 들어가 9년 간 벽좌(壁坐)를 하며 중국선을 일으켰다고 한다.

달마-혜능 선맥이은 임제때 황금시대

◊전반 보살 대원사 극락전 벽에 그려져 있는 혜가 단비도. 혜가 스님이 자신의 팔을 잘라 달마에게 견내 주며 사생결단의 구법 결심을 보여주는 그림.

참불자의 길 참선⑧-중국선의 역사

우리나라 선불교의 모태는 흔히 중국 선불교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막상 '중국 선불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달마가 막혀버리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현실이다. 중국 선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선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된 것은 A.D 67년으로 가섭마등과 촉반란 등이 낙양 백마사에 머물면서부터다. 이후 선경(禪經)이 전래돼 안세고에 의해 소송계통의 <안반수외경> <선행법상경>과 지루가참에 의해 대승계통인 <반주삼매경> <도행반야경>, 구라다집에 의해 <선법요해> <좌선삼매경> 등이 번역되었다. 이처럼 6세기 이전의 중국선은 경전에 의존했다.

우리가 중국선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선사가 보리 달마다.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인 달마는 선법을 닦기 위해 중국의 소림사에 들어가 9년 간 벽좌(壁坐)를 하며 중국선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달마는 제자 혜가(慧可)를 만나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설하며 중국 선의 초조가 된다. 그의 법은 2조 혜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남종선의 6조 혜능과 북종선의 신수로 나누어져 눈부신 발전을 한다.

여기서 달마의 면벽 좌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대에 달마의 면벽 좌선에 대해 송대의 종감(宗鑑)

이라고 한다. 이 때가 중국 선이 체계를 잡고 실천한 시기다. 계속해서 이러한 선수행 체계는 <신심명>의 저자로 알려진 제 3조인 승찬(2~600)에 까지 계승된다. 그러나 제4조 도신과 제5조 홍인은 <금강경>을 중시하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시대를 열었다.

제4조 도신(580~651)은 황매현의 쌍봉산에 들어가 대승선을 실천하며 30년 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실천불교를 전개했다. 그 결과 문하에 5백명의 수행승들이 운집하는 수행도단을 형성했다.

그의 제자인 제5조 홍인(601~674)은 쌍봉산의 동산(東山)으로 옮겨 새로운 수행 도량을 열어 1천 여 명이 수행했는데 이를 동산종이라고 칭했다. 이때 불법의 요리를 알려진 수심(守心)이 제일이라는 내용의 선서 <수심요론>이 저술된다.

또 홍인의 문하에서는 북종선의 신수로 남종선의 혜능이 배출되면서



중국은 본격적인 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6조 혜능은 자각과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상(無相)의 반야사상을 일체화 한 유명한 선서 <육조단경>을 편찬하며 새로운 중국 선불교를 완성시켰다. <육조단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선수행을 하는 불자들에게 기본서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후 임제의원(2~866)은 간화선(禪)을 중심으로 한 임제종, 위산영우

(771~854)와 양산혜적(807~883)은 위양종, 동산양계(807~869)와 조산본적(840~901)은 육조선을 주장하는 조동종, 운문문인(862~947)은 일자관으로 지도하는 운문종, 법안문인(885~958)은 염불선을 주장하는 법안종 등을 각각 개창해 선의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들은 각각 특색 있게 발전했는데 이를 중국 선종의 5가(五家)라고 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산골소녀 영자의 선택

충분한 자각과 경제성 없이 기업과 언론의 품에 덤석 안겨버리면, 삶의 아름다운 틀은 쉽사리 망가지게 마련. 산골 부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래 등장하는 자청 후원자의 부추김, 반대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도시로 나선 영자, 돈 벌었다 싶어 달친 강도에게 피살되는 아버지, 영자의 통장마저 등쳐 먹고 외면하는 후원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인생 부침(浮沈) 앞에서 영자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인류가 자랑하는 문화와 문명은 욕망 증폭의 과정이요 장치이기도 하다. 오직 인간만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욕망을 키워간다. 몸의 욕구, 정신의 욕망이 문명과 문화의 이름으로 무한히 번져간다. 아직 문명에 열리지 않은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과 활발 발한 생기가 얼마나 가련가. 문화에 길들고 문명에 부추겨진 아이의 눈빛은 곧 예고와 욕망으로 복잡해지고 생기가 바래져간다.

문화를 생명의 오염원으로, 문명을 삶의 덮개로 보게 되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고는, 퇴색해 가는 인생에 틀들

거친 바람 헤치며

내딛는 힘을 키우렴

을 위협한다. 어찌해야 하는가. 탈출구는 있다. 머무르지 않고 물러나지도 말며,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카르모는 근기의 흥분과 때문에 날 달고자 하는 마음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들은 배운 지식과 총명한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며 화두란 이런 것이다' 하는 선언을 가지고 견주듯 헤아려서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쉬는 곳에서 본래면목이 바로 드러남을 알지 못한다. 본래면목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며 처음부터 한 번도 어두워 본 적이 없는데도, 본래면목을 찾는다는 생각에 가토막혀서 바로 그 찾는 생각 속의 본래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수미산(彌彌山)' '방하착(放下著)' 이아말로 조사가 전한 진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모든 시비분별을 부수어 버리고' 이렇다는 생각이

울산대 철학과 교수



많이 배운 지식이나 선방에서 오래 참선하는 남자들이 걸리니 쉬운 공부(功)는, '날 카르모는 근기의 흥분과 때문에 날 달고자 하는 마음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들은 배운 지식과 총명한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며 화두란 이런 것이다' 하는 선언을 가지고 견주듯 헤아려서 깨달음을 구하려 할 뿐,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쉬는 곳에서 본래면목이 바로 드러남을 알지 못한다. 본래면목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며 처음부터 한 번도 어두워 본 적이 없는데도, 본래면목을 찾는다는 생각에 가토막혀서 바로 그 찾는 생각 속의 본래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수미산(彌彌山)' '방하착(放下著)' 이아말로 조사가 전한 진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모든 시비분별을 부수어 버리고' 이렇다는 생각이

놓아버리고 이렇게 없다는 생각도 놓아버려서 활활 타고 있는 불명어처럼 어떤 생각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곧 '공(空)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헤아리고 비교하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이니, 마치 '배는 뒤집어 지지도 않는데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이 매우 불쌍한 일'이다. 이들은 '공(空)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수미산'이며,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곳'에서 '방하착' 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생각에 의지하여 보면 시비분별도 생각이요 공(空)도 생각이요 '수미산'도 생각이요 '방하착'도 생각이지만, 본래면목에서 보면 시비분별도 본래면목이요 공도 본래면목이요 '수미산'도 본래면목이요 '방하착'도 본래면목이다. 깨닫고자 하는 생각을 앞에 두

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본래면목일 뿐 다른 일은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리는 생각에 매어 있는 한,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깨달음 수도 실 수도 없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리는 그 생각이 바로 본래면목의 드러남을 알지 못하고 생각에 막혀서 본래면목을 찾고 있으니,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명스런 빛이 어둠을 없애지 못하듯 쓸 수 있는 흙을 없애지 못하듯'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알아알아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이 일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구할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도 없으며, 언어로서 이를 수도 없고 침묵을 가지고 통할 수도 없

'서장' 통한 선 공부 ④

증시랑에 대한 답서(2)

생각 비우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각은 이렇게 본래면목을 저렇다' 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모두 본래면목의 일이고 본래면목을 벗어난 다른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본래면목일 뿐이다. 지금 찾고 있는 이것이 찾고자 하는 목적물이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을 일으킬 줄도 알고 생각을 놓을 줄도 안다. 생각을 일으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타나며 생각을 비우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다. 마치 우

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취사간택(取捨揀擇)은 모두 생각을 따라다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가 '중생은 이렇게 부처는 저렇다' '생각은 이렇게 본래면목을 저렇다' 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모두 본래면목의 일이고 본래면목을 벗어난 다른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본래면목일 뿐이다. 지금 찾고 있는 이것이 찾고자 하는 목적물이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을 일으킬 줄도 알고 생각을 놓을 줄도 안다. 생각을 일으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타나며 생각을 비우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다. 마치 우

주가 별들로 꼭 차 있기도 하고 허공이기도 하듯이, 생각이 있어도 본래면목 그대로이며, 생각이 없어도 본래면목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이리저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리저리라는 생각을 놓을 수만 있다면 본래면목이 달리 없다. 따라서 대하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일시에 생각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사랑하거나 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문득 본래면목을 깨달을 것이니, 그 때에는 이 생각이 바로 진공의 묘한 지혜(眞空妙智)이고 달리 얻을 지혜는 없습니다.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어리석은 때에는 동쪽을 일컬어 서쪽이라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서쪽이 그대로 동쪽일 뿐 따로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Advertisement for '기적의 법' (Miraculous Law) by Bland. Includes a large graphic with the title and a quote: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하루에 3천배를 1,000일간 하여 300만배를 하고 하루 만배씩 100일간 하여 100만배를 하였으며 지금도 하루 최소 108배를 3회 이상 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기적의 법' (Miraculous Law) by Bland. Includes a list of features: '절수련특강' (Specialized Practice Course), '도서 출판 붓다의 마음' (Buddha's Heart Publications), and a list of dates and times for the course.

Advertisement for '한국인의 새사주팔자' (New Korean Astrology) by Bland. Includes a list of features: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특약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운명에 대하여 대처(對處)한다면 총화(兪禍)의 역(厄)을 면(免)하고 전하(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는가.'

Advertisement for '신비의 꿈해몽' (Mystical Dream Interpretation) by Bland. Includes a list of features: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비법을 밝힌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싶어서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책의 구성 (공유한 무엇인가(일명 총통)) (내용, 그 총통의 비법) (꿈풀이 솔루션)', '부록 (일문 부부궁합)'

Advertisement for '풍수지리 핵심비결' (Feng Shui Core Secrets) by Bland. Includes a list of features: '저자는 생기(生機)를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사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뉘어 있다.', '2. 길터(吉地)와 묘터(陰宅)는 풍운(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길(凶地)터에서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량(糧食)의 은혜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Advertisement for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Mystical Oracle's Great Encyclopedia) by Bland. Includes a list of features: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40,000원', '어쨌든 지금 (지침)을 치르고 존택(尊德)을 사고 존심(尊心)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